

“배움으로 다시 청춘” 강진 신청년 올드대학 힘찬 출발

이제는 올드의 시대, 강진군이 만든 ‘시니어 르네상스’
기술습득·재능기부 등 맞춤형 인생 2막 프로젝트 본격 시동

강진군이 ‘2025년 신청년 올드대학’ 개강식을 지난 24일 어울림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 30명의 수강생이 참여해 새로운 배움의 출발을 알렸다. ‘올드(YOLD)’는 젊음을 의미하는 ‘Young’과 노년을 의미하는 ‘Old’의 합성어로, 전통적인 노인 개념을 탈피해 활기차고 능동적인 시니어 세대를 일컫는다.

이번 교육과정은 60세 이상 신청년들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진행된다. 상반기 7회, 하반기 7회로 나뉘어 운영되며 각 과별로 특화된 교육 목표가 설정돼 있다.

상반기에는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실습 중심의 전문 교육이 진행된다. 신청년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실제 재취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유익한 과정으로 참가자들의 높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반기에는 삶에 여유와 웃음을 더해줄 문화, 체험, 교류 중심의 취미·여가 프로그램이 마련돼 배움과 심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특히 하반기에는 상반기 과정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마을 노후 벽화 보수 봉사활동 펼쳐 수강생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주민들과 교감할 수 있는 뜻깊은 나눔의 시간이 될 예정이다.

이번 ‘신청년 올드대학’은 강진군의 대표적인 군민 맞춤형 정책 브랜드 중 하나로 주목 받고 있다. ‘반값관광’은 강진의 이름을 전국에 알린 성공적인 지역 관광 모델로 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켰고, ‘강진군 육아수당’은 아이 키우기 좋은 강진을 만들기 위한 미래세대 투자로 각광받고 있



다.

그리고 이번 개강식을 진행한 ‘신청년 올드대학’은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강진군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군민 중심 정책을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이제 막 60세를 넘겼는데, 다시 학생이 된 기분

이다.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뭔가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 너무 설렌다”며 “앞으로의 수업이 기대된다”고 설레는 소감을 전달했다.

이어 강진원 강진군수는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배움을 통해 제2의 인생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설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담양군 봉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불 세탁 사업 추진

담양군 봉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진철, 김미심)는 지난 25일 관내 취약계층 23 가구를 대상으로 봄맞이 이불 세탁 사업을 추진했다.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한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생활지원사들이 세대를 방문하여 이불 39채를 수거하고 전문세탁업체(월드크리닝 담양점)에서 세탁 후 위원들과 생활지원사들이 대상자들의 집까지 배달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쌍교숯불갈비(김창희 대표)에서 기탁한 후원금 1,000만 원

중 일부를 사용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한 주민은 “매년 환절기마다 이불 세탁이 큰 일이었는데, 겨울 이불과 카펫을 직접 수거하여 세탁하고 갖다 주기까지 하시는 덕분에 걱정을 덜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미심 공동위원장은 “우리의 작은 손길이 취약계층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자원봉사자 헌신적 활동 훈훈

대회 기간 1천51명, 주말도 잇는 채 감동·화합·안전대축전 헌신

전라남도는 27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총 1천51명의 자원봉사자가 헌신적인 활동을 펼쳐 전남의 훈훈한 인심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는 지난 2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자원봉사 플랫폼’을 통해 선발됐다. 자원봉사 기본소양교육과 직무교육, 친절교육을 마친 후 대축전 현장에 본격 배치됐다.

이들은 종합상황실 지원, 개·폐회식 지원, 경기 운영 지원, 안내소 및 홍보관 운영 등으로, 대축전 기간 원활한 경기 진행을 돕고 있다.

또한 행사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쓰레기

수거 및 환경 정비를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장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은 환한 미소와 친절로 도움이 필요한 선수와 관객들을 응대해 전남의 따뜻한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다.

따뜻한 미담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김성수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남도회장은 2023년 전국(장애인)체전부터 올해 대축전까지 목표종합경기장 홍보관 운영에 참가해 관객과 선수를 위해 부상 방지 스트레칭과 테이핑 치료, 운동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김상길 전남도자원봉사센터장은 “전남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친절하게 선수



와 관객을 맞이하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봉사에 임하고 있다”면서 “감동, 안전, 행복이 가득한 대축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현호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대축전은 3개년 전국단위 체육대회의 대

미를 장식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원봉사자의 헌신과 열정이 대회의 성공을 견인하고 있다”며 “자원봉사자의 따뜻한 손길이 대축전 현장을 더욱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염선호 기자



고향을 향한 따뜻한 마음, 장학금 기탁으로 이어져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24일 도암면 출신 백형록 씨가 지역 인재 육성과 학업 지원을 위한 장학금 500만 원을 화순 장학회(이사장 구복규)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백형록 씨는 고향인 화순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화순군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쌀 200포를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행보를 이어왔다. 이번 장학금 기탁은 백형록 씨가 오랜 시간 간직해온 고향에 대한 애정과 지역사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루어진 것으로 화순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형록 씨는 “고향에서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되돌려드리고 싶었다”라며, “앞

으로도 후배들이 꿈을 이루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복규 이사장은 “따뜻한 나눔이 학생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며, “기탁받은 장학금은 지역 인재들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사용하겠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화순장학회 장학기금 기탁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인구정책팀과 평생교육팀(061-379-3352)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김종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한수위의 에너지 한수원이 만드는 중!

미래형 소형원자로(SMR) 개발
세계 곳곳에 원자력 수출
클린에너지 원자력 수소
대한민국 에너지를 한 수 UP!

한국수력원자력주